

## 남자대학생의 얼굴계측에 따른 유형별 헤어컷 디자인 연구

김미정<sup>1)</sup> · 이상례<sup>2)</sup>

1)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The Study on the Types of Hair Cut Designs based on the Face Measurements of Male College Student

Mi-Jung Kim<sup>1)</sup> and Sang-Rye Lee<sup>2)</sup>

1)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2)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face types of haircut design that is the basis for the completion of a hair styling mainly with case of male college student. For the purpose of this, I carried out direct and indirect observation and measurement for faces of 293 male college student who attended universities in Busan, and measured face types which were classified by the group analysis preferred hair style in order to do actual hair cut desig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 This paper conducted the element analysis in regard to the direct and indirect items of face, and it pulled out 5 elements. As a result of group analysis with elem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y are classified into 4 types. For actual hair cut design, 4 types classified by group analysis and nearing models analyzed. This research bring accurate information classified face types.

**Key words :** face measurements, face types, hair cut

## 1. 서 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가사노동의 감소, 양성화 등 전통적인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성역할의 변화는 남성패션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남성들의 가치관들이 점차 패션을 지향하게 되고, 패션관련 상품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남성소비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황진숙 · 나영주, 1999).

최근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을 위하여 단순히 의복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헤어스타일, 화장까지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김재숙 · 류지원, 2004). 외모관리에 있어서 남성들은 신체에 직접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화장이나 피부관리 보다는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다.

요즘 남성들이 미용실을 출입하는 일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남성전용 미용실이 성업 중에 있다(정영희 · 김창현, 2000). 과거 남성들과 달리 현대남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미용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패션에 민감한 일부 남성들은 여자보다 더 과감한 헤어스타일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남성들 70%가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손질을 하며 1개월에 한번 정도는 머리손질을 위해 지출하고 하고 있다(<http://www.kimsungchul.com>, 2003). 남성 잡지나 인터넷, TV광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통해 그들의 스타일을 답습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스타일들을 모방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각 개인의 다양한 감각에 부응하기 위해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도주연, 1990; 윤지성, 2000; 윤소영, 2001; 임희정, 2001; 임남영 · 강승희, 2003; 김재숙 · 류지원, 2004)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행과 함께 개개인의 개성과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용학은 얼굴을 중심으로 미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얼굴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머리모양이나 화장과 같은 얼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다수의 헤어스타일의 연구 중 얼굴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은(Davis, 1980; Tate, 1991; 김경순, 1996; 황의순, 1996; 최

Corresponding author; Mi-Jung Kim  
Tel. +82-51-624-0222, Fax. +82-51-622-6326  
E-mail: kmj6022@empal.com

귀자, 1999; 양숙희 외, 2001) 얼굴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분류내용과 분류기준이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관적인 시각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에 국한되어 다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 절차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을 20대 남자대학생으로 한 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이인 청년기에 속하며, 중·고등학교의 두발제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얼굴부위를 계측하고 계측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된 얼굴형간의 계측치의 차이와 유형별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분류된 얼굴유형에 이상적인 헤어컷을 제시함으로써, 헤어관련 연구자들에게 헤어스타일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헤어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헤어 시뮬레이션으로 계측한 얼굴유형을 활용함으로써 헤어스타일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얼굴형

얼굴형은 이목구비와 머리모양을 제외한 얼굴의 외곽선을 말하며, 얼굴유형은 외곽선의 형태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누어지는 타입들의 총칭을 말한다. 사람들의 얼굴형은 실제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들은 얼굴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왔으며 얼굴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된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달랐다.

Davis(1980)는 얼굴형을 계란형(oval), 정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삼각형(triangular),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마름모형(diamond), 직사각형(rectangular)의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적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Tate(1991)는 얼굴형을 계란형, 사각형(square), 둥근형, 삼각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김경순(1996)은 얼굴형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얼굴형을 계란형, 장방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의 7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황의순(1996)은 피부미용과 헤어스타일을 위한 얼굴분석을 목적으로 7가지 즉, 계란형(egg shape), 원형(round shape), 사각형(square shape), 긴형(oblong shape), 삼각형(triangle shape), 역삼각형(heart shape), 마름모형(diamond shape)으로 분류하였고, 각 얼굴형을 표준형인 계란형에 근접해 보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최귀자(1999)는 미용실 고객의 모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목적으로 시각적 판단에 의해 얼굴형을 분류하였는데, 둥근형이 51.9%, 장방형 30.5%, 사각형 8.9%, 마름모형 5.0%, 역삼각형 3.0%, 삼각형 0.6% 순이었으며, 양숙희 외(2001)는 계란형이 33.4%, 둥근형 33.1%, 약간 네모형 13.2%, 장방형 10.6%, 역삼각형 6.7%, 삼각형 3.0%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남원(2000)의 조사에서는 장방형 28.3%, 계란형 25.7%, 둥근형

23.9%, 사각형 12.4%, 역삼각형 5.3%, 마름모형 3.5%, 삼각형 0.8%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얼굴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분류된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계란형이 가장 미인형 또는 표준형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스타일도 다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각각의 얼굴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을 극소화시키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헤어 디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얼굴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2. 현대 남성 헤어스타일의 형태

근대 이후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근대생활에 맞추어 간소화되고, 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화로 등장한 영화, 매스컴을 통하여 세계는 서로 교류하며 헤어스타일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한 발전을 겪게 된다.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문화의 발달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관습과 전통의 전승과 타협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기존문화에 대한 저항과 거부 의 형태로 표출되는 반문화의 형태로서 급격하고 과격한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간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들은 패션계에도 속속 영향을 미쳤는데 그 속도와 성향은 1990년대 패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다양했다.

헤어스타일 또한 매우 다양한 스타일들이 공존하였다. 스윙, 댄스 북고운동과 더불어 긴 앞머리와 바짝 깎아 올린 뒷머리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스타일을 재창조하였으며, 랩 가수들은 1920년대의 수염들을 새롭고 독특하게 해석하여 연출했다. 또한 인종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제3국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면서 아프리카 풍의 힙·합·레게(Hip-hop reggae)풍이 유행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빗질하지 않아 부스스해진 머리를 가닥가닥 나는 머리, 전체머리를 땀은 아프로 브레이드 형식의 머리 등이 유행하였다(임희정, 2001).

2000년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시공간적인 환경과 그에 따른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 감각이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의 동시적 등장이다(오문균, 2002). 이와같은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은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모방, 과장, 변형을 통하여 획극적 효과를 연출하는 아방가르드적 헤어스타일과 아프리카적인 레게스타일, 라틴 아메리카적 스타일, 아시아적 스타일의 민속적 헤어스타일, 그리고 남녀 성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남성의 여성화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긴 머리스타일의 앤드로 지너스적인 헤어스타일등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유행의 흐름을 쫓아가기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게 되고 연출하기에 이르렀으며, 모발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게 되면서 홈 케어를 하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9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을 위한 사진촬영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0부 가운데 일부 계측이 미비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7부를 제외한 293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20~22세; 41명, 23~24세; 73명, 25~26세; 89명 27~28세; 48명 29~30세; 42명)으로, 23세에서 26세가 조사대상자의 약 55%이상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헤어컷 디자인 연구를 위해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으로 구성되었다.

**직접계측 방법** : 얼굴 직접계측의 기준점과 기준선은 문남원(2000), 조용진(19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의 국민표준체위조사 연구에 준하였으며, 마틴식 인체계측기를 사용하여 길이, 너비, 높이의 13항목을 계측하였다.

**간접계측 방법** : 이마각, 아래턱끝 각, 뒤통수 각에 대한 간접계측 자료를 얻기 위해 각 대학 강의실에서 정면·측면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은 대상자에게 머리띠를 착용시켜 이마선 및 얼굴 윤곽선이 잘 보이도록 하게 한 후 의자에 앉히고 정면을 촬영하였으며, 옆면은 두상의 형태를 잘 드러나도록 물을 분사하여 최대한 모발을 붙인 후 촬영하였다(Fig. 1). 사용된 기기 및 용구는 디지털 카메라(SONY F505V), 삼각대, 계측판(524\*752 mm)의 50 mm간격의 수직 수평선이 그려져 있다)을 사용하였다. 직·간접 계측항목은 Table 1과 같다.

####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계측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얼굴 계측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계측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였다. 요인의 수는 Kaiser의 고유치 1.00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Varimax 방법

Table 1. 직간접 계측항목

구분	내용
직접 계측항목	1. 머리길이 2. 얼굴길이 3. 머리 너비 4. 이마시작 너비 5. 이마 너비 6. 얼굴 너비 7. 하악각 너비 8. 턱결절간 직선너비 9. 상안부 길이 10. 중안부 길이 11. 하안부 길이 12. 귀 붙점·턱끝점 길이 13. 키
간접 계측항목	14. 이마 각 15. 아래턱 끝각 16. 뒤통수 각

에 의해 직교회전하여 요인의 내용을 밝혔다.

계측치에 따른 유형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각 인자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의 수는 유형별 출현율을 고려하여 최종 4개로 결정하였다. 분류된 유형들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각 계측항목의 평균값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고찰

#### 4.1. 얼굴부위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얼굴부위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남자대학생의 머리길이는 평균 23.2 cm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의 한국 남성 청년 18세~24세의 평균치인 23.2 cm, 25세~39세의 평균치인 23.3 cm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얼굴길이는 평균 18.0 cm로 국민표준체위조사의 18세~24세의 평균치인 19.4 cm, 25세~39세의 평균치인 19.8 cm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머리너비 역시 국민표준체위조사의 18세~24세의 평균치인 15.8 cm, 25세~39세의 평균치인 16.1 cm보다 좁은 15.4 cm로 나타났다. 신장은 국민표준체위조사의 18세~24세의 평균치인 171.4 cm, 25세~39세의 평균치인 170.9 cm보다 더 커진 174.4 cm로 나타났다.

1997년에 조사된 계측치와 비교해 보면 현재 남자대학생들은 머리길이에 비해 얼굴길이가 짧아졌고, 머리너비 역시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키는 커진 반면 얼굴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안, 중안, 하안부 길이의 평균은 5.7 cm, 5.5 cm, 6.9 cm로 하안부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평균적인 남자대학생의 상안, 중안, 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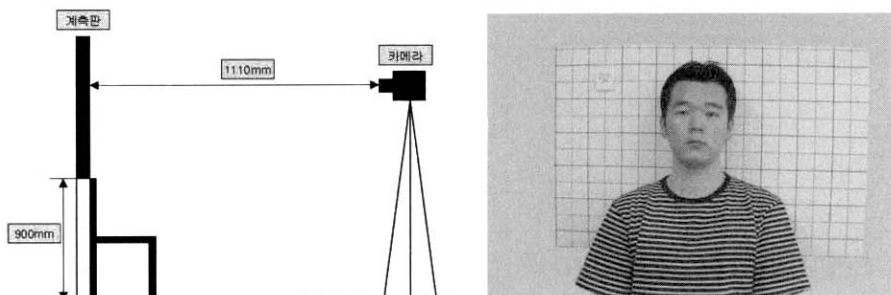


Fig. 1. 간접계측 배치도 및 사진.

**Table 2.** 얼굴부위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cm(n=288)

항 목	평균	표준편차
머리길이	23.2	.843
얼굴길이	18.1	.940
머리너비	15.4	.551
이마시작너비	2.6	.833
이마너비	11.1	.750
얼굴너비	13.0	1.125
하악각너비	10.8	.770
턱결절간 직선너비	2.8	.576
상안부길이	5.7	.735
중안부길이	5.5	.465
하안부길이	6.9	.725
이마각	35.9	8.62
아래턱끝각	43.8	6.08
귀 볼점 · 턱끝점길이	8.0	.999
뒤통수각	22.1	7.25
키	174.3	4.984

의 길이에서 증안이 짧고 하안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4.2. 얼굴유형 구성인자 추출**

직 · 간접계측에 의한 계측항목으로 얼굴유형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16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각 요인은 Table 3과 같다.

얼굴유형 계측항목을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0.6157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요인에 부하량이 집중되어 있는 항목은 하악각 너비, 얼굴너비, 머리너비, 이마너비 항목으로 「얼굴의 횡적크기」에

관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2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얼굴길이,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머리길이를 「얼굴의 종적크기」에 관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요인으로 포함된 항목은 하안부길이, 키, 뒤통수 각, 이마각으로 「신장을 비롯한 길이항목 및 형태항목」이며, 제4요인으로 포함된 항목은 이마시작 너비, 턱결절간 직선너비로 「얼굴 위아래 너비」에 관한 요인이며, 마지막 제5요인은 아래턱 끝각, 귀 볼점 · 턱끝점길이를 「하안부 외곽크기」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4.3. 얼굴유형 분류**

**군집 수 결정 :** 계측된 다양한 얼굴유형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몇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5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3~7개의 군집에 대하여 각 군집별로 출현율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군집수를 4개로 결정하여 얼굴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개의 분포상태는 유형1에 73명, 유형2에 80명, 유형3에 72명, 유형4에 63명이 각각 분포되었으며, 계측값 절측 5명으로 군집에 포함되지 않아 총293명중 288명이 군집분석에 사용되었다.

**얼굴유형별 특성 :** 직 · 간접 계측치에 의해 분류된 얼굴유형별로 각 계측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정하였으며, Duncan의 사후검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5는 분류된 각 유형과 길이, 너비, 각도, 신장항목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5 에 의하면, 이마 각, 아래턱 끝각, 뒤통수 각, 키가

**Table 3.** 얼굴 직간접계측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 성 인 자				
	1	2	3	4	5
하악각 너비	.839	-1.766E-02	-3.848E-02	-1.727E-02	-6.317E-02
얼굴 너비	.832	3.751E-02	5.158E-02	-7.665E-02	.122
머리 너비	.671	5.670E-02	-3.133E-02	.132	-.180
이마 너비	.493	.392	9.808E-02	-.314	-5.875E-02
얼굴 길이	.105	.894	.172	.148	1.735E-03
상안부 길이	-1.185E-02	.887	-.149	-2.388E-02	-.127
중안부 길이	8.604E-03	.432	.421	8.668E-02	.179
머리 길이	.245	.384	.351	.356	-.302
하안부 길이	-8.415E-02	9.323E-02	.772	4.904E-02	7.602E-02
키	9.609E-02	.168	.539	.196	-9.860E-02
뒤통수 각	.230	.198	-.530	.175	.310
이마 각	.183	-.108	.405	-.268	5.261E-02
이마시작 너비	3.033E-02	8.272E-02	-.113	.709	-7.709E-02
턱결절간 직선너비	-8.870E-02	-1.046E-02	.324	.561	.182
아래턱 끝각	-2.611E-02	-1.022E-03	.133	.209	.713
귀 볼점 · 턱끝점길이	.109	9.571E-02	.166	.261	-.681

**Table 4.** 얼굴 직간접 계측치의 요인내용 및 항목

요인	요인내용	요인에 포함된 항목
1	얼굴의 횡적크기	하악각너비, 얼굴너비, 머리너비, 이마너비
2	얼굴의 종적크기	얼굴길이,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머리길이
3	신장 및 길이, 형태	하안부길이, 키, 뒤통수각, 이마각
4	얼굴 위아래 너비	이마시작너비, 턱결절간 직선너비
5	하안부 외곽 크기	아래턱끝각, 귀 볼점 · 턱끝점길이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시작 너비, 하안부 길이는 p<.05, 얼굴길이 및 이마너비, 턱결절간 직선거리, 귀볼점·턱끝점길이에서는 p<.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굴유형별 각 계측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얼굴길이는 유형1이 가장 길고, 유형3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시작너비는 유형2가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얼굴유형은 유형1로 나타났다. 이마너비는 유형4가 가장 넓고 유형3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턱결절간직선너비는 유형2가 가장 넓고 유형3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각은 유형4가 가장 크고, 유형3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턱끝각

역시 유형4가 가장 크고, 유형2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귀볼점과 턱끝점사이길이는 유형3이 가장 길고 유형4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통수 각은 유형4가 가장 크고, 유형1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키는 유형1이 가장 크고, 유형3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이 얼굴유형 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얼굴유형 분류 결과에 따라 각 유형별 특성을 종합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상 직·간접 계측치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유형으로 분류된 얼굴유형특성을 계측치간의 관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Fig. 2는 4개의 얼굴유형을 명료화하기 위해 도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의 얼굴유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Table 5.** 얼굴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항 목	유형1 (73명)	유형2 (80명)	유형3 (72명)	유형4 (63명)	F 값
머리길이	23.179	23.215	23.174	23.240	.091
얼굴길이	18.014	17.986	17.951	17.995	1.612*
머리너비	15.463	15.354	15.419	15.519	1.153
이마시작너비	2.433	2.758	2.664	2.516	2.350**
	B	A	AB	AB	
이마너비	11.115	10.991	10.998	11.262	2.057*
	AB	AB	B	A	
얼굴너비	12.851	13.012	12.989	13.043	.398
하악각너비	10.725	10.974	10.837	10.848	3.92
턱결절간 직선너비	2.768	2.854	2.653	2.722	1.613*
상안부길이	5.681	5.548	5.741	5.754	.239
중안부길이	5.414	5.575	5.528	5.492	.908
하안부길이	7.470	6.731	6.801	6.771	3.277**
	A	AB	AB	AB	
이마각	40.82	34.00	29.57	45.22	147.894***
	B	C	C	A	
아래턱끝각	42.44	35.01	38.15	45.27	77.004***
	B	C	C	A	
귀볼점·턱끝점 길이	8.008	7.914	8.242	7.876	1.923*
	AB	AB	A	B	
뒤통수각	14.38	23.51	23.71	27.57	72.263***
	C	B	B	A	
키	175.658	175.008	172.881	173.897	4.510***
	A	AB	C	BC	

\*p<.1 \*\*p<.05 \*\*\*p<.01, a>b>c

### 5. 남자대학생의 얼굴 유형별 헤어컷 디자인 실제

본 장에서는 앞서 남자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얼굴의 직·간접계측 분석을 토대로 분류된 4가지 얼굴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모델의 얼굴유형과 자신의 용모에 잘 어울

**Table 6.** 얼굴유형별 특성

유 형	특 성
유형1(73명)	장방형에 가까운 유형 얼굴길이가 가장 길고, 얼굴너비는 가장 좁다 하안부 길이와 신장이 가장 크다
유형2(80명)	사각형에 가까운 유형 얼굴길이가 평균값에 가깝고, 얼굴너비는 평균값에 비해 넓다 하안부 길이는 가장 짧다 이마각은 작은 편이고, 아래턱 끝각은 가장 작다
유형3(72명)	등근형에 가까운 유형 얼굴길이, 얼굴너비, 하안부 길이 모두 평균값에 가깝다 이마각은 가장 작고, 아래턱 끝각도 작은 편이다
유형4(63명)	계란형에 가까운 유형 얼굴길이, 얼굴너비, 하안부 길이 모두 평균값에 가깝다 이마각과 아래턱 끝각이 약45°로 가장 크며 전체적으로 가름한 얼굴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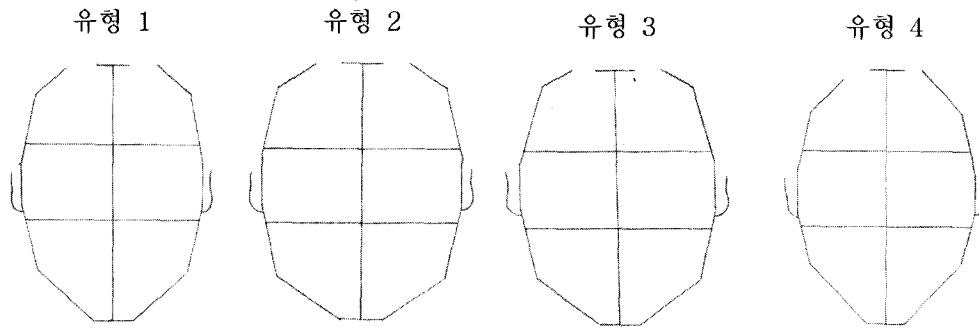


Fig. 2. 얼굴유형별 실루엣.

리는 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모델의 얼굴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4가지 얼굴유형 중 유형1의 장방형에 가까운 얼굴유형과 유형2의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유형, 유형3의 둥근형에 가까운 얼굴유형, 유형4의 계란형에 가까운 얼굴유형 각각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추출하였으며, 모델의 의견을 수렴하여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결정하였다(Fig. 3).

5.1. 얼굴유형 1의 헤어컷 디자인

헤어컷 시술과정해설 : 모델의 경우 이마와 턱이 긴 편이다. 이때 이상적인 손질은 긴 이마를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커버해 주거나 긴 이마를 살짝만 드러내 주는 것이 좋고, 덩수룩한 머리보다는 짧은 스타일이 스마트 해 보인다. 모델의 선호 헤어스타일은 어깨 정도 길이에 굽은 웨이브진 헤어스타일로 답했다. 하지만 모델은 스트레이트로 인해 모발이 직선으로 뻗은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성 강한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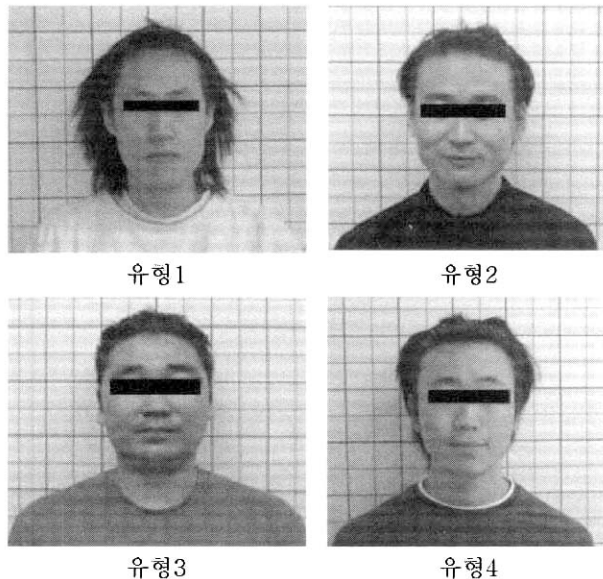


Fig. 3. 얼굴 유형 분류.

의 의견을 수렴하여 펑크적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 즉, 모발 끝이 뾰족하면서 불규칙하며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결정하고 시술에 임하였다.

먼저 시술 전 샴푸 후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마 위치와 방향, 자연 가르마를 체크 한 후 모발과 두형, 헤어라인 등을 체크하였다. 커트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가르마를 기준으로 2등분하였다. 백 부분부터 사선 섹션하여 45° 각도로 유지하고 레이저(razor)와 가위를 동시에 사용하며 가마 지점까지 컷팅 하였다. 백 부분은 가마지점 까지 커트 한 후 리세션 섹션 기법으로 가마지점부터 좌우 사이드 포인트 지점까지 나누었다.

사이드 부분은 코끝선 위치에 맞추어 백 라인과 연결해서 90°로 세워서 커트 하였으며 백 부분 보다 층이 많이 나도록 하였다. 탑 부분은 오른쪽의 가마위치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가마 방향으로 돌면서 커트 하였다. 이때 정수리 부분의 가마는 뿌리 모발이 강하게 움직이므로 모발의 흐름세를 보고 서브섹션후 컷팅 하여야 하며, 머리길이가 짧아지면 들뜨고 갈라지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90°로 포인트 컷하였다. 다음 앞머리와 옆선이 연결되도록 컷팅 하되, 답답하지 않도록 불규칙하게 컷팅하여 끝을 가볍게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밸런스를 보고 헤어스타일링 하였다(Fig. 4).

5.2. 얼굴유형 2의 헤어컷 디자인

헤어컷 시술과정해설 : 각진 얼굴은 선이 딱딱하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컷인상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모델의 경우 턱선이 각이 많이 졌으며, 전체적으로 머리가 긴 편이며, 층이 길어 볼륨 없이 두상에 달라붙어 답답한 인상을 준다.

모델의 모발 길이가 다소 짧아 의견을 수렴하여 앞머리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하고 머리끝 부분을 소프트하게 처리하여 인상을 완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둔 디자인을 결정한 후 시술에 임하였다. 먼저 시술 전 샴푸 후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마 위치와 방향, 자연 가르마를 체크 한 후 모발과 두형, 헤어라인 등을 체크하였다.

자연가르마를 기준으로 2등분 후 두상이 납작한 편이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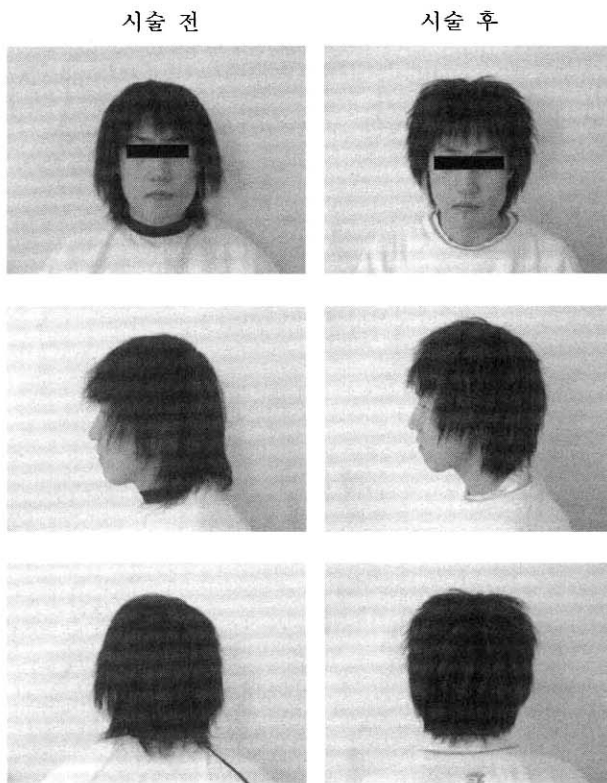


Fig. 4. 헤어컷 디자인 시술 전후 모습.

의 세로 섹션으로 커팅 하여 층을 내었다. 모발 굵기가 가는 편이기 때문에 후두부 쪽으로 올라 갈수록 각도를 적게 두어 층을 좀 길게 해서 전체적으로 짧아 보이지 않고 볼륨감 있게 하도록 하였다. 가마 부위에 다시 서브 섹션 하여, 가마 방향으로 커팅 하였다. 옆 머리부분이 뜨는 모발이기 때문에 각도를 적게 주어 뜨지 않게 좀 길게 커팅 하였다. 옆 머리부분의 구렛나루는 귀 선에 맞추어 귀를 완전히 파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쯤 덮도록 커팅 하였다.

앞머리 부분이 M형이면서 숱이 적은 편이므로, 약간 무겁게 커팅 하였으며, M형 이마를 커버하기 위해 양쪽 이마머리를 조금 길게 커팅 하였다. 앞머리 부분이 자칫 무거워 보일수 있기 때문에 앞 머리안쪽 머리를 좀 짧게 하고 윗머리가 긴 더블 컷을 하고, 머리끝을 포인트 컷으로 소프트하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무거운 부분을 숱을 쳐주고 밸런스를 체크하였다. 끝으로 스타일링 하여 마무리하였다(Fig. 5).

### 5.3. 얼굴유형 3의 헤어컷 디자인

**헤어컷 시술과정해설 :** 유형 3의 모델은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적당히 짧으면서 헤어제품으로 깔끔하게 손질된 스타일로 답했다. 모델은 둥근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윗머리는 볼륨을 살리고 옆머리는 볼륨을 최대한 억제해 전체적으로 산뜻하게 연출하는데 포인트를 주었다. 먼저 시술 전 샴푸 후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마 위치와 방향, 자연 가르마를 체크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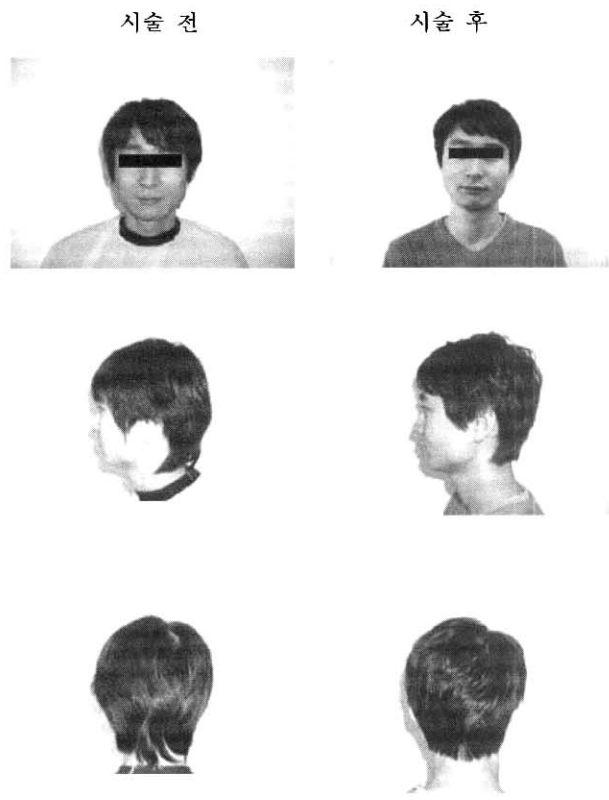


Fig. 5. 헤어컷 디자인 시술 전후 모습.

후 모발과 두형, 헤어라인 등을 체크하였다.

오른쪽의 가마부위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가마방향으로 커팅 하였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짧지 않게 커팅 하였으며, 특히 앞머리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길게 커팅 볼륨감 있게 하였다. 옆 머리부분은 장방형과 반대로 최대한 볼륨을 억제하기 위해서 빗을 90°로 유지하며 클리퍼로 커팅 하였다. 이때, 둥근형에 가까운 유형 3의 경우 사이드 부분을 파부가 다 보이도록 짧게 밀어버리면 얼굴형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귀 옆 구렛나루 부분을 살려 넓어 보이는 양 귀 사이를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편 옆머리도 동일하게 커팅 하였다. 백 부분은 사이드부분과 달리 볼륨감 있게 하기 위해 빗을 45°로 유지하며 커팅 하였다.

목덜미 부분은  $\cap$ 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를 짧게 자르면 움푹 들어가면서 들뜨게 된다. 이 경우 양쪽 길이에 맞춰 커팅 하되 너무 짧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체크 컷을 하고 지지분한 잔털을 제거한 다음 스타일링 하였다(Fig. 6).

### 5.4. 얼굴유형 4의 헤어컷 디자인

**헤어컷 시술 과정 해설 :** 유형 4의 모델의 경우 계란형에 가까운 가름한 얼굴형으로 어떤 헤어스타일과도 무리 없이 어울리는 얼굴유형이다. 모델은 내츨한 하면서 손질이 쉬운 헤어스타일로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자칫 소극적이



Fig. 6. 헤어컷 디자인 시술 전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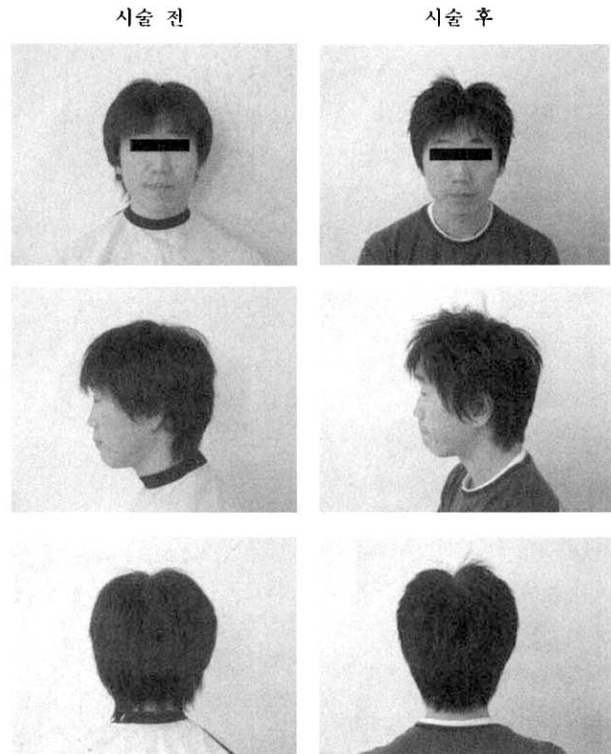


Fig. 7. 헤어컷 디자인 시술 전후 모습.

고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다.

모델에게 헤어스타일을 다시 제안하고 모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밝고 활동적이면서 산뜻한 느낌의 디자인 연출에 포인트를 두고 시술에 임하였다. 먼저 시술 전 샴푸 후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마 위치와 방향, 자연 가르마를 체크 한 후 모발과 두형, 헤어라인 등을 체크하였다. 가마부위의 머리를 가이드 라인으로 정하고 90°로 돌려 모발 끝을 가볍게 포인트 컷팅 하였다. 모델의 측면모발이 많이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탑 부분과 연결하여 측면 모발을 45° 각도로 조금 길게 컷팅하였다.

앞머리는 눈썹 선 위로 컷팅하여 이마가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여 한결 밝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다. 먼저 삼각형으로 프린지 섹션 후 이마 중앙부분은 눈썹이 보이게 조금 짧게 컷팅하였다. 이때 모델의 이마가 M형이므로 이마 가장자리 부분은 눈썹 끝에 맞추어 조금 길게 컷팅하여 귀 옆라인과 연결하였다. 백 부분은 가마부위의 머리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볼륨감 있는 층을 만들기 위해 45° 각도로 세워서 컷팅하였다. 뒷머리는 짧게 하지 않고 목덜미 선에 맞춰 조금 긴 듯이 컷팅하였다. 전체적으로 술을 쳐주고 지저분한 잔털을 제거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가 맞는지 체크한 후 스타일링 하였다(Fig. 7).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헤

어디자인 요소 중 얼굴형을 연구의 요인으로 설정하고 남자대학생의 얼굴계측을 통해 얼굴부위의 계측특성과 분류된 얼굴형간의 계측치의 차이, 그리고 유형별 특징을 밝혀 각 얼굴형에 맞는 이상적인 헤어컷을 제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부산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얼굴부위의 직·간접계측을 하였으며, 분류된 얼굴유형은 실제 헤어컷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부위의 직·간접계측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장방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얼굴길이가 가장 길고, 얼굴너비는 가장 좁고, 하안부길이와 신장이 가장 크다. 유형 2는 사각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하안부길이가 가장 짧고 이마각은 작은 편이고, 아래턱끝각은 가장 작다. 유형 3은 둥근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얼굴길이, 얼굴너비, 하안부길이 모두 평균값에 가깝고, 이마각은 가장 작고, 아래턱 끝각도 작다. 유형 4는 계란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이마각과 아래턱 끝각이 약 45°로 가장 크며 전체적으로 가름한 형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이마각과 아래턱 끝각이 얼굴유형 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4가지 얼굴유형은 각각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모델로 추출하였으며, 모델들의 얼굴유형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을 제안하여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고 실제 헤어컷을 실시하였다.

유형1 모델의 경우 이마와 턱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때 이상적인 손질은 긴 이마를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커버해 주거나 긴 이마를 살짝만 드러내 주는 것이 좋고, 답수룩한 머리보다는 짧은 스타일이 스마트 해 보인다. 하지만 모델의 경우 개성 강한 헤어스타일을 원하여 핑크적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 즉, 모발 끝이 뾰족하면서 불규칙하며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디자인하여 커팅하였다.

유형2 모델의 경우 각진 얼굴은 선이 딱딱하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모델의 경우 턱선이 각이 많이 졌으며, 전체적으로 머리가 긴 편이며, 층이 길어 볼륨 없이 두상에 달라붙어 답답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앞머리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하고 머리끝 부분을 소프트하게 처리하여 인상을 완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두어 커팅하였다.

유형3 모델의 경우 머리가 전체적으로 짧아 윗머리는 볼륨을 살리면서 옆머리는 볼륨을 최대한 억제해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가름해 보일 수 있도록 커팅하였다.

유형4 모델의 경우 가름한 얼굴형으로 어떤 헤어스타일과도 무리 없이 어울리겠으나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발 끝을 가볍게 하고 층을 주어 밝고 산뜻한 느낌의 연출에 포인트를 두고 커팅하였다.

남성소비자의 비중이 날로 커져 가는 시점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헤어산업계와 헤어 관련 교육에 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이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부산시내 거주하는 남자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남자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 얼굴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 디자인으로만 헤어컷을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하지 못한 점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헤어컷에 필요한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얼굴유형별 이상적 헤어컷을 제시하여 계측된 얼굴유형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여성 뿐 아니라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애란 (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순 (1996) "Make up". 청구문화사, 서울, pp.68-75.
- 김재숙·류지원 (2004) 헤어길이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1320-1328.
- 도주연 (1990)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남원 (2000)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분류와 계측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133-144.
-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정 (2001) 대학생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남영·강승희 (2003) 의복유행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오문균 (2002) 테크놀로지 이미지적 헤어스타일의 동시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숙희·남철연·김성우·곽형심·남현주·이명옥 (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 요인분석. *보건복지연구*, 6, 193-215.
- 정영희·김창현 (2000) 남자대학생의 신체 의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61.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사계절 출판사, 서울, pp.44-74.
- 최귀자 (1999) 미용실 고객의 모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건복지연구*, 4, 91-118.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공업진흥청.
- 황의순 (1996) "미용학 개론". 청구문화사, 서울, pp.185-189.
- 황진숙·나영주 (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복식*, 49, 65-72.
- Davis M.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p.83-86.
- Tate S.L. (1991) "Fashion Handbook". Harper Collins Publishers, New York, p.104.
- http://www.kimsungchul.com (2003) Man's Hair 시장현황 및 전망. (2004년 7월 14일 접수)